



경제 > 농식품

'미래 농촌 먹거리' 농촌융복합산업 연 매출 23조 규모 쑥쑥 성장

농식품부, '2021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10만4067개...종사자 수도 32만명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03-16 17:25 송고



© 뉴스1

국내 농촌융복합산업 종사자 수는 32만8000여명으로, 연매출만 23조원 규모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1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농식품부는 2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현황 및 특성 변화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 중인 경영체는 모두 10만4067개로,

이중 농가 수가 8만9525개로 전체 86%를 차지했다.

또 농촌융복합산업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1805개(농가 553개, 법인 1252개)로, 대표자가 귀농·귀촌한 경우는 전체 17.2% 수준이었다.

산업군 종사자 수는 모두 32만7645명이었는데 경영체당 평균 3.1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영체 유형별 평균 고용인원은 법인이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가 2.4명, 인증경영체 7.8명, 미인증 경영체 3.1명 순이었다.

경영체 전체 매출액은 23조2564억원으로 1차 매출액이 8조87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3차(7조3106억원), 2차(7조69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체당 평균 매출액은 2억3850만원이다. 인증 경영체 평균매출액은 14억5540만원, 미인증 경영체의 평균매출액은 2억1560만원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1차×3차 산업이 전체 47.6%를 차지했고, 1차×2차×3차 산업 29.8%, 1차×2차 산업 22.6% 순이었다.

2차 산업 영위업체는 대부분 식품가공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3차 산업 영위업체의 세부업종은 직매장(70.3%), 체험관광(7.7%), 식음료점(3.3%) 순이었다.

소비자가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은 52.2%로, 이중 상품 구매자의 87.3%와 체험(관광) 경험자의 82.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